

2025년 7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 개최

○ 일시 및 참석인원

일 시	참 석 인 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편성시간 변경
바로보는TV 옴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3:50~04:20 (재방송 매주 월 00:30~01:00)	해당사항 없음

○ 방송현황

※ 프로그램 제목과 평가원 진술 주제를 3줄 이내로 기술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 고
김홍태	7/6	[토요와이드] 고강도 대출 규제 전격 시행...부동산 시장 혼란 [뉴스투나잇] 역대 최강 대출 규제..."부동산 시장 숨고르기 할듯"	
안지연	7/13	[토요와이드] 반복되는 고령자 돌진 사고...대책은 지지부진 [일요와이드] 이어지는 개인정보 유출..."채찍만으론 한계"	
임운주	7/20	[일요와이드] 한국 OECD 경기전행지수 3년 7개월 만에 '최고' [일요와이드] 수박·배추·광어 가격 ↑...폭염에 농수산물 '히트플레이션'	
최미연	7/27	[뉴스24] 이 대통령, 고용·환경·복지 장관 임명안 재가 [뉴스1번지] 강선우 사의 표명..."국민께 사죄 말씀"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변동사항 없음'

구 분	성 명	전 · 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 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대한변호사협회 권익위원	2018. 06. 28	-
활동	임운주	이화여대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연구원	2021. 11. 28	-
활동	안지연	동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초빙교수	2023. 01. 31	-
활동	최미연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	2024. 07. 25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붙임1]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5 7/6(일)	김홍태	지난 6월 27일 뉴스투나잇에서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초강수 대출규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당분간 숨고르기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정부의 필요시 규제 지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임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방송은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 도입 배경과 현장 반응을 균형 있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서울의 지역들의 사례를 통해 나뉠 생생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수요자, 특히 청년·신혼부부의에 대한 영향을 조명한 점도 의미 있습	부동산 정책에 대해 좀더 균형감 있는 시각에서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실수요자에 대한 사례 등은 수시로 체크해서 의미 있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다만 정책의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전달하고 예외적인 상황도 전달하면서 보완할 점도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송은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의 반응을 시의적절하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현장 중개사의 인터뷰와 전문가 분석을 통해 정책 효과와 시장 심리의 변화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방송에서는 풍선효과와 공급 부족 우려를 지적한 전문 의견은 좋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측 해명이나 보완 계획 등도 함께 담았다면 정보 전달의 균형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향후 방송에서는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에 따른 현장 혼란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흐름도 설명해 주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시장 변화에 흔들리기보다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내 집 마련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지에 대한 언급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2025 7/13(일)	안지연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고용노동부가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규정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재검토 권고를 재고해 달라며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과 5월 해당 조항이 획일적이고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했고, 최근 기록적 폭염으로 중대재해 우려가 커지면서 노동부가 재심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보도는 기록적	지적하신 부분은 추후 보도시 참고하겠습니다.

		인 폭염 상황 속에서 시민의 일상과 노동 현장의 대응을 함께 조명하며, 폭염을 일시적인 기상 현상이 아닌 사회적 관리가 필요한 위험 요소로 다뤘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돋보입니다. 특히 제도적 대응과 생활 속 예방을 함께 전달해 개인과 정부 모두의 역할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폭염 대응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염을 단순한 기후 문제가 아닌 사회적 대응이 요구되는 재난 상황으로 인식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부족했고, 노동 현장의 제도 개선과 관련해 중소기업, 영세 사업장의 현실적 부담이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현장 반응이 더해졌다면, 폭염 대응을 둘러싼 과제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25 7/20(일)	임윤주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양한 경제 지수에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 경기선행지수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도한 <일요와이드> 살펴보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히트플레이션'이 가시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 보도 역시 앞서 제안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설명이 제공되었다면 좋았을 보도인데요. 히트플레이션이란 영어로 열을 뜻하는 히트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본 용어는 대략 3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신조어나 시청자가 듣기에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을 좀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쓰겠습니다.

		사용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작년년부터 언론을 통해 많이 언급되기 시작한 비교적 신조어에 속합니다. 연합뉴스TV의 지난 보도들을 살펴보면 해당 신조어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보도도 있는데요. 본 보도 역시 말미에 간략하게 덧붙이기는 했지만, 자막 등을 통한 자료가 제공되었다면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보도 전반적으로 수박 및 배추 가격 동향을 그래프로 보여주어 가시적인 전달성이 높았고, 최근 농수산식품 가격 변동의 원인을 이해하기 좋게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2025 7/27(일)	최미연	지난 20일 연합뉴스TV의 보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6시간 넘는 임시대의원총회 끝에 복귀 조건으로 3대 요구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만 복귀 시점이나 구체적 실행 계획은 포함되지 않아 향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며, 미필 전공의 입영 연기와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등 구체적 요구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미필 전공의 입영 연기와 관련해, 병무청은 복귀자들이 수련을 마친 후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입영제도에 유연성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도 논의되고 있으며, 1년 반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실무 조치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력 수급 문제 재검토와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며 갈등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의 보도는 전공의 복귀 논의가 실질적인 진전을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환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만큼 좀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이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복귀 논의의 맥락과 전환점을 명확하게 전달함으로써 갈등 당사자와 함께 병무청, 복지부의 대응까지 포함해 제도적 개선 가능성을 시사한 점이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1년 반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은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나 국민 건강권 침해, 공공의료 정상화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단체나 일반 시민의 시각은 보도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아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한 보도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절충안 소개를 넘어 복귀 조건의 정당성, 형평성 문제, 정책 실행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보완된다면, 시청자들이 보다 깊이 있고 균형 있게 사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5. 07. 06 방송) : <바로보는 TV 읍부즈맨 710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김홍태입니다. 지난 주 첫 소식은 지난 6월 28일 토요일이드인데요,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됐는데요, 다만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 속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란 우려와 함께 실수요자의 혼란도 큰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자금 마련 문턱이 높아지자, 9억 원 이상의 중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는 부동산 시장 개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던 정부가 갑자기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면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련 문의가 이어지는 등 시장이 혼란스럽다는데요, 한창 집값이 오르던 지역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 대출금으로 잔금 맞추는 것으로 계획했던 분들이 많은데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수요에 찬물이 끼여버린 가운데, 서울 외곽 지역도 일단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을 본 손님이 앞으로 더 가격이 내려갈 것 같다면서 좀 더 내려간 다음에 사겠다고 연락이 왔다면 이제 사람들이 안 올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 정책이 다음 달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3단계 적용 시기와의 맞물리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혼란은 가중될 거라는데요, 청년층,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정책대출 한도도 최

대 1억 원 줄어들어 일각에서는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도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 거래량과 가격에 단기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데요, 다만 중저가 매물의 가격이 오르는 등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어 적절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저가 아파트 가격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공급 정책이 빠진 게 아쉽다면서, 3기 신도시를 조기에 공급하고 비아파트 부분의 활성화를 통해서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집값 급등과 가계대출 폭증세를 막으면서도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층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면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6월 27일 뉴스투나잇에서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초강수 대출규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당분간 숨고르기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정부는 필요시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임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 부동산 시장은 바로 들쭉였다는데요, 서울 마포구의 공인중개사는 대출규제가 6월 28일부터 시행되었기에, 날짜를 다시 잡아서 지난 6월 27일 계약서 쓰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는 집 사는 것도 다 심리하면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동안 많이 올라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비교할 만큼 강력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거래량과 집값 상승 폭이 줄어드는 등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당분간 진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필요시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공급 대책도 곧 내놓겠다는 한 것을 전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첫 번째 방송은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 도입 배경과 현장 반응을 균형 있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서울의 지역들의 사례를 통해 나름 생생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수요자, 특히 청년·신혼부부의 에 대한 영향을 조명한 점도 의미 있습니다. 다만 정책의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전달하고 예외적인 상황도 전달하면서 보완할 점도 짚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송은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의 반응을 시의적절하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현장 중개사의 인터뷰와 전문가 분석을 통해 정책 효과와 시장 심리의 변화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방송에서는 풍선효과와 공급 부족 우려를 지적한 전문 의견은 좋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측 해명이나 보완 계획 등도 함께 담았다면 정보 전달의 균형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향후 방송에서는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에 따른 현장 혼란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흐름도 설명해 주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시장 변화에 흔들리기보다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내 집 마련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지에 대한 언급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 28일 토요와이드에서는 앞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지만, 경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면서, ‘36주 낙태’ 사건과 관련된 집도지와 병원장이 결국 구속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해당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은 산모만 수백명에 달할거라는데요, 초진 산부인과 의사는 심장도 이렇게 잘 뛰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낳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36주 태아에 대한 낙태 수술이 이뤄진 건 지난해 6월인데요, 임신 36주차인 유튜브 A씨가 여러 병원에서 거절당한 뒤 한 산부인과에서 결국 낙태 수술을 했으며 올린 영상이 논란이 된 겁니다. 당시 경찰은 병원 관계자 진술과 압수품 분석, 의료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수술 당시 태아가 살아 있었고 이후 방치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이후 4개월 만에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장에 대

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여죄가 확인되지 않아 사건 마무리를 위한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수사를 최종적으로 종결하진 않았고, 보강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낙태 수술한 산모가 수백 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와 관련된 추가 자료를 확보한 뒤 8개월 만인 지난 19일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는데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추가 불법 행위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36주 태아에 대한 낙태 수술 의사의 구속을 다루고 있는데요, 형법상 낙태죄 폐지 이후 낙태가 금지되는 시기나 기준 등에 대한 보도가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이 각각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요, 당시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하라고 하면서 구법을 계속 적용할 것을 명했으나, 시한 내에 대체 입법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실제 낙태를 처벌할 규정은 공백인 상태입니다. 특히 이 보도에서는 이러한 처벌의 공백을 이용하여 산모 수백 명을 수술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충격이 있어 보입니다. 입법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장 재청구에 의해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낙태죄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보도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단순 낙태만이 아니라 수술 과정에서 살아있는 상태를 방치해 살인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결국 구속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살인행위 없이 단순 낙태만이 행해진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점은 다시금 짚고 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28일 뉴스오늘에서는 한 마디 첩보에 기대 밤낮 없이 좁은 차량 안에서 잠복하고, CCTV 수백 개를 훑으며 집요하게 범인 행적을 쫓고, 보이스피싱 조직 밀감타진을 위해 수백 개 계좌도 살살이 분석하는 강력팀 형사들의 수사 과정을 기자가 밀착 취재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한 남성이 자전거를 끌고 다니다 흰색 SUV에 접근해서 차 문을 열고 안을 뒤지더니 이내 자리를 떠났다고 전합니다. 지난 12일 서울 마포역 인근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현금을 훔쳐 달아난 피의자인데요, 피의자의 행적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장소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팀 형사들과 함께 피의자를 추적하는데요, 빗속을 누비며 주변 CCTV를 살살이 훑는 결과 교차로에서 공원으로, 공원에서 다시 도로변으로 이어지는 동선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서울 마포서 강력4팀 백창순 경위는 피의자도 추적하고요. 또 다른 여죄도 찾고요. 다른 차량에서 물색하는 장면을 추가로 확인하면 피해자를 또 확보한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들고 지하철역 안으로 내려간 피의자를 계속해서 추적해보지만 이내 난관에 봉착합니다. 서울 마포서 강력4팀 박재서 경위는 이곳이 CCTV 저장 기간이 짧아서 남아 있지가 않다며. 방법 CCTV로 반경을 넓혀서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끊어졌다 다시 이어가기를 반복하는 범인 동선 추적. 처음으로 돌아가 범행 전 동선을 역추적하는가 하면, 범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약 없이 잠복 근무를 할 때도 많습니다. 서울 마포서 강력4팀 고주성 경사는 잠복할 때 여름에 에어컨도 못 켜고 한겨울에 히터도 못 틀고, 하지만 오랫동안 기다린 범인을 잡았을 때는 성취감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기자가 이번엔 계좌 기록 분석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고 있는 형사들을 만났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담하는 이곳 강력팀은 최근 대포통장 조직 총책 등 20여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은행에 범인 명의의 통장을 들고와 수억 원 상당의 수표를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계좌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대포통장 수백 개를

찾아내며 조직원들을 줄줄이 붙잡았습니다. 서울 용산서 이환재 강력3팀장은 저를 포함해 팀원들이 사건을 각자 20건 이상씩 갖고 있는데 600개 이상 계좌를 분석하고 있다면서, 주말과 휴일도 다 반납하고 수사에 임하고 있다는데요, 차량털이와 보이스피싱과 같은 생활 밀착형 범죄부터 살인과 강도 등 강력 범죄까지 치안 현장 최일선에서 뛰는 강력팀 형사들.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잡는다는 일념 아래 오늘도 매의 눈을 부릅뜨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강력팀 형사들의 수사 현장을 밀착 취재해 강력팀 형사들의 노력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기자가 직접 수사 과정과 수사 현장을 전달하고 있어 시청자들이 현실감 있게 이해하기 쉬운 매우 잘 된 구성으로 보입니다. 차량털이와 보이스피싱 사건이라는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범죄 수사 과정의 어려움과 함께 성취감을 균형 있게 보여준 점도 돋보입니다. 다만, 피의자의 범행 방식이나 수법, 동선 등을 잘 묘사하고 있지만 잘못하면 범죄 재연 현장처럼 비취질 우려도 있어, 이 부분은 신중하게 편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수사에서는 조직원 검거 사실 전달도 중요하지만, 간단히라도 형사를 통해 대포통장 근절이나 예방 방안 등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도 전달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향후에는 피해자 목소리나 형사들의 사명감 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마주하는 법적 한계나 윤리적 고민 그리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도 다루면 더 유익한 방송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안지연 시청자평가원(25. 07. 13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711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책적 대응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어, 대책 마련의 시급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요구되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반복되는 고령 운전자의 돌진 사고를 막기 위한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발생 1년이 지났지만, 대관령 휴게소와 마포구 공원 등 고령 운전자의 돌진 사고는 반복되고 있는데요, 실제 통계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매년 늘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는 사고는 늘고 있지만 대책 논의는 여전히 더디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는 참여율이 2%대로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라며 운전능력을 평가해 운전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생계와 이동권 문제가 걸려 있어 무작정 도입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지역과 운전자의 상황을 고려한 기준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보도는 차량 급출발을 방지하는 장치 설치도 비교적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고령 운전자 돌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도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통계 자료를 통해 사고의 심각성을 드러냈고, 자진 반납제의 한계와 조건부 면허제, 급출발 방지 장치 설치 등 대안의 필요성도 함께 짚었습니다. 특히, 정책 추진이 정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예방 대책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설명은 있었지만, 법안 논의가 왜 지연되고 있는지, 그

정치적, 사회적 맥락까지는 충분히 다뤄지지 않아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함께 제시되었다면 더욱 깊이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국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보안에 대한 근본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등의 제도로는 사고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6일 일요와이드의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에 주목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 사이버 침해 사고는 총 1,8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약 50% 증가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여러 기업에서 대규모 유출 정황이 포착되어 올해는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유출 사고가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도는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보안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징금 등 징벌적 대응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IT 대기업들과 민관협력을 통해 표준화된 정보보호서비스 운영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아울러 보도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정보보호 투자 공시 의무화를 통한 책임 강화의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규모가 작은 업장일수록 형식적 대응에 그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이 보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를 전달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사이버 침해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다양한 업종에서 대규모 유출 정황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전해 그 심각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보도는 중소기업이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징벌적 조치 외에 민관협력을 통한 표준 정보보호 서비스 도입, 정보보호 투자 공시 의무화 등 제도 개선 논의도 함께 소개하며 대응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제도적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나 현장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분석은 부족했습니다. 제도의 실효성과 현실 적용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더해졌다면, 시청자들이 제안의 현실성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일상 속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폭염은 노동 현장과 시민들의 일상 생활까지 위협해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고용노동부가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규정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재검토 권고를 재고해 달라며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과 5월 해당 조항이 획일적이고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했고, 최근 기록적 폭염으로 중대재해 우려가 커지면서 노동부가 재심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도는 낮 최고 38도 폭염을 피해 계곡과 산을 찾은 피서객들의 모습을 전했는데, 집에 있는 것 보다 시원하게 느껴진다는 피서객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습도가 높은 요즘 날씨에는 체온이 잘 식지 않아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라고 조언하는데, 특히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위험이 크며, 가정에 에어컨 등 냉방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보도는 야외활동을 해야 한다면 가장 더운 낮 12시에서 5시 사이를 피하고 충분한 수분섭취와 그늘 휴식 등 건강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보도는 기록적인 폭염 상황 속에서 시민의 일상과 노동 현장의 대응을 함께 조명하며, 폭염을 일시적인 기상 현상이 아닌 사회적 관리가 필요한 위험 요소로 다뤘다는 점에

서 시의성이 돋보입니다. 특히 제도적 대응과 생활 속 예방을 함께 전달해 개인과 정부 모두의 역할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폭염 대응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염을 단순한 기후 문제가 아닌 사회적 대응이 요구되는 재난 상황으로 인식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부족했고, 노동 현장의 제도 개선과 관련해 중소, 영세 사업장의 현실적 부담이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현장 반응이 더해졌다면, 폭염 대응을 둘러싼 과제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속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법정 시한은 넘긴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협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으로 최저임금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였던 법정시한은 이미 넘겼고 매년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8월 5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도, 노사는 거듭 수정안을 제시하며 의견을 교환했지만 1만 900원과 1만 180원 사이, 720원 차를 두고 힘을 겨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물가 인상을 두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노동계는 물가가 오른 만큼 인상률이 높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고 경영계에서는 고물가 부담을 취약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보도는 결국 공익위원들이 나서 1만 210원~1만440원, 인상률 1.8%~4.1% 구간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면 위원회가 합의나 표결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과 공익위원 중재안 제시 과정을 중심으로 협상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균형 있게 소개하고, 법정 시한이 경과된 상황과 향후 절차도 함께 다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특히, 보도에서는 최저임금 심의가 단순한 임금 수치를 넘어서 노동자의 생계와 취약 사업주의 부담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짚어 최저임금 결정이 갖는 현실적인 무게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위원 중재안의 기준이나 과거 심의와의 비교 등을 덧붙였다면 중재안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더욱 깊이있는 이해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임윤주 시청자평가원(25. 07. 20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712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임윤주입니다.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양한 경제 지수에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 경기선행지수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도한 <일요와이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7개월 연속 상승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주요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OECD에 따르면, 지난 6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101.08로 2021년 11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주요 20개국 평균인 100.50보다 높은 수치로, 한국의 경기 회복세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뚜렷하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도 3개월 연속 상승하며 경기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스TV의 지난 기사를 살펴보면 경기선행지수를 설명한 보도를 찾을 수 있는데요, 경기선행지수는 경기 전환점을 빠르게 포착하기 위해 고안된 지표로, 6~9개월 후 경기 흐름을 미리 가능하는데 쓰입니다. 7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는데, 보도에서도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분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선행지수는 다른 경제 지표들과 함께 고려하여 경기 방향성을 판단하는 것이 좋은데, 본 보도 역시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도 함께 언급하여 이해를 도왔습니다. 다만 보도가 전해지는 동안 일반적인 자료 화면이 제공되었는데도, 대신 경기선행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에 대한 설명이나 수치 변화 그래프가 제공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폭염에 가격이 오른 농수산물에 대한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인 수박은 ‘제철과일’이지만 최근 무더위에 가격이 훌쩍 뛰면서 선뜻 사 먹기 어려워졌습니다. 일주일 새 22.5%나 오르며 3만원에 육박했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일조량이 감소해 수박 생육이 지연된 상황에서 무더위로 수박의 당도까지 떨어져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값이 치솟았던 배추도 무더위가 찾아오자 가격이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배추 가격 역시 일주일 새 27% 올랐습니다. 바다의 온도도 빠르게 오르면서 수산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이어졌던 지난해에는 양식장에서 집단 폐사가 발생하며 양식업 피해액이 1,430억원에 달했습니다. 그 여파가 올해까지 이어지며 지난달 광어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14%, 우럭은 41.8% 상승한 수준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히트플레이션’이 가시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 보도 역시 앞서 제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설명이 제공되었다면 좋았을 보도인데도, 히트플레이션이란 영어로 열을 뜻하는 히트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본 용어는 대략 3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작년부터 언론을 통해 많이 언급되기 시작한 비교적 신조어에 속합니다. 연합뉴스TV의 지난 보도들을 살펴보면 해당 신조어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보도도 있는데요. 본 보도 역시 말미에 간략하게 덧붙이기는 했지만, 자막 등을 통한 자료가 제공되었다면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보도 전반적으로 수박 및 배추 가격 동향을 그래프로 보여주어 가시적인 전달성이 높았고, 최근 농수산물 가격 변동의 원인을 이해하기 좋게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급발진 사고에 대한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80대 승용차 운전자 A는 인도를 돌진해 상가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또 다른 70대 운전자도 인도로 돌진했는데, 역시 급발진을 주장했다. 지난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가해 운전자 역시 법정에서까지 급발진을 주장했다. 결국 페달 오조작으로 결론 났습니다. 최근 5년간 급발진 의심 사례로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에 감정 의뢰된 교통사고는 모두 4백여 건이지만, 이 가운데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85%는 운전자 페달 오조작으로 최종 판정됐습니다. 전문가는 정부 차원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운전 중 급발진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당황하지 말고, 일단 발을 떼 다음 브레이크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본 보도는 급발진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고들의 대부분이 사실 페달 오조작이었다는 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도는 자동차 관련 전문가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 제안 의견을 전하기도 하고, 급발진 의심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은 고령 운전자입니다. 구체적인 보도를 전하기 전 언급했던 사례 모두 70대 이상의 운전자입니다. 덧붙여 언급된 지난해 시청역 역주행 사고도 운전자가 70대에 가까운 나이로, 사고 당시에도 고령 운전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앵커 역시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차량 돌진 사고를 언급하며 보도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본 보도는 고령 운전자 문제와 페달 오조작 문제가 섞여 있는 보도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문제를 지적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를 강조하고자 했다면 급발진 의심 사고의 운전자 평균 연령 등이 관련 정보가 제공되거나, 전문가 제언 역시 이와 관련한 내용이었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혁신 방안과 관련하여 보도한 <뉴스 리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실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19%로 나타났습니다. 전날 전국 지표조사에 이어 연이를 10%대 지지율을 나타낸 것으로, 이는 21대 총선 패배 직후인 2020년 연말 이후 처음입니다. 문제는 혁신을 얘기하는 당내 목소리들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 혁신위가 전 당원 투표를 거쳐 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문을 당헌·당규에 담겠다고 했지만 반대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당 중진인 나경원 의원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내놓은 혁신안은 끝없는 갈등과 분열만 되풀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안철수·조경태 의원은 무엇보다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혁신위는 두 번째 회의를 열고 현재의 최고위원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본 보도는 현재 국민의힘 혁신을 둘러싼 엇갈린 당내 의견들에 대해 정리해 잘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대국민 사죄문, 인적 쇄신 등에 대해 전하며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으로는 기사 제목에서 언급된 대구 경북 지역에서마져 민주당에서 지지율이 밀렸다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은 보도가 전해지는 중 자막으로도 언급되었는데, 이를 뒷받침하고 시청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할 때 지역별 결과를 함께 보도했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일본의 방위백서에 대한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표했습니다. 2005년 이후 21년째 왜국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이번엔 어린이판 방위백서까지 만들어 초등학교에 배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외교부, 국방부 청사로 불러들여 엄중 항의했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부당한 주장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는 입장을 내놴습니다. 방위백서는 국가의 국방정책과 현황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만드는 문서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보도에서는 보도의 제목, 내용 등에서 일본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에서 무려 21년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다시 한번 해당 문제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필요함을 전달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최미연 시청자평가원(25. 07. 27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713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최미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 출범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장관 인선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장관 임명이 재가되며 국정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여가부 장관 후보자 사퇴로 이 대통령 내각

구성에 잠시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복건복지부 장관, 국세청장, 법무부 등 9명의 임명안을 재가했고, 지난 23일 신임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각 장관으로 지명한 18명의 후보자 가운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을 철회했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국민계 사회의 말씀을 울리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이며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민 상식에 맞선 선전포고’이자, ‘슈퍼갑질 정권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의 보도는 여야의 입장을 모두 인용하며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엿보이고, 사건의 진행 상황을 충실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관 임명 논란은 단순히 후보자의 자질 평가를 넘어, 조직과 정부의 관계, 공적 윤리에 대한 시각 등 다층적인 사회적 담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의 초점이 정치권 내부 갈등에 치우쳐 있어, 장관 임명이 국민의 삶이나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대한 설명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단순한 행정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인선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국정 철학과 방향성을 보다 명확히 조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침체된 소비 심리를 살리고 소상공인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현장과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1일 시작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국에서 698만 명이 신청해 1조2,722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소비쿠폰은 신용,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약 5백만 명이 신청한 국민지원금 첫 날보다 빠른 속도로 신청과 지급이 진행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 효과와 국민의 기대감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유통가에서도 특수 잡기 경쟁이 일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쿠폰 사용이 제한되지만, 가맹점 형태의 편의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해 편의점들이 할인 묶음 상품과 신상품으로 소비자 공략에 나섰습니다. 외식업계와 배달앱도 가맹점 중심으로 쿠폰 사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형마트는 자체 할인 행사로 대응 중이며, 소상공인연합회는 동네 가게와 전통시장에서의 쿠폰 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의 보도는 정부의 의도대로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 활성화 이면에는 우려되는 문제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쿠폰 사용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을 현금화하거나 되팔이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쿠폰 사용을 독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의 효과가 일시적인 소비 촉진을 넘어 공정하고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의 긍정적 측면뿐 아니라 부작용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고, 김건희씨의 최측근과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 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1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짜맞추기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제한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문건

을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통지해 심의권을 침해하고, 허위 문서를 작성·폐기해 헌법상의 통제 장치를 무력화한 혐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최소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김건희 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주범 이정필 씨에게 수사 및 재판 지원을 약속하고 8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검은 이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김 여사가 사건을 챙기고 있다”는 발언 정황도 포착된 가운데, 특검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조사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 이후 무인기 작전, 외환 의혹 등 추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용대 드론사령관은 계엄 명분 조성을 위한 작전 공모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고, 한덕수 전 총리의 위증 혐의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해병대 특검은 김계환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 혐의로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이어 보도된 기사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특검 수사가 본격적인 사법 절차로 접어들며 정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수사는 과거 정권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를 기반한 헌법질서 수호와 권력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법적 근거와 절차의 정당성을 바탕으로 수사에 임해야 하며, 언론도 이 사건을 정치공방이 아닌 민주주의 원칙의 관점에서 다뤄야 합니다.

이번 보도는 기소 내용과 관련 혐의를 잘 정리해 독자들이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한 점이 돋보입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 입장도 함께 다루며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다만, 보도가 수사 사실 전달에만 집중되어 있어, 이 사건이 갖는 헌법적 의미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짜맞추기 수사’ 주장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해설이 요구됩니다. 의정 갈등으로 현장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 복귀는 반길 일이지만, 그에 앞서 누적된 갈등을 해결하고, 형평성 논란 등에 대한 충분한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복귀 소식에 그치지 않고, 그 이면의 사회적 의미와 제도적 과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연합뉴스TV의 보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6시간 넘는 임시대의원총회 끝에 복귀 조건으로 3대 요구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만 복귀 시점이나 구체적 실행 계획은 포함되지 않아 향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며, 미필 전공의 입영 연기와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등 구체적 요구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미필 전공의 입영 연기와 관련해, 병무청은 복귀자들이 수련을 마친 후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입영제도에 유연성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도 논의되고 있으며, 1년 반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실무 조치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력 수급 문제 재검토와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며 갈등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의 보도는 전공의 복귀 논의가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복귀 논의의 맥락과 전환점을 명확하게 전달함으로써 갈등 당사자와 함께 병무청, 복지부의 대응까지 포함해 제도적 개선 가능성을 시사한 점이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1년 반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은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나 국민 건강권 침해, 공공의료 정상화वाद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단체나 일반 시민의 시각은 보도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아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한 보도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절충안 소개를 넘어 복귀 조건의 정당성, 형평성 문제,

정책 실행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보완된다면, 시청자들이 보다 깊이 있고 균형 있게 사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대표 방송스틸컷

일시/장면설명 2025년 7월 6일 04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일시/장면설명 2025년 7월 13일 04시/ 안지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일시/장면설명 2025년 7월 20일 04시/ 임윤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일시/장면설명 2025년 7월 27일 04시/ 최미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